

# '동네책방, 인문학 거점으로 활용해야'

### 전주시민포럼 '시민인문학 활성화' 주제 논의·토론 "예술가·문인·지역연구자 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

시민들의 생활 속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동네 작은 책방들을 인문학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문학 관련 지역 화폐도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환희 전북사회과학연구소 인문학동기는 지난 11일 오후 7시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에서 열린 '2018 전주시민인문학포럼'의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2018 전주시민포럼은 전주시가 시민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담론의 장으로 이날 포럼에서는 '시민인문학 활성화'를 주제로 시민교육 차원에서 인문학을 어떻게 활성화하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펼쳐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인문학 활성화 방안-동네의 작은 책방들을 지역인문학 거점으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김환희 인문학동기는 "인문학이 '인간의 무늬에 대한 학문'이라면, 인문학적 장소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축조되는 것이다"며 "지역 인문지원의 매개, 진흥, 확산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인문학 공간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인 '인문화(貨)'를 발행하면 독서모임 등이 이를 이용, 도서

를 구입할 수도 있고 모임장소에서 차값 등 장소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인문화(貨)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그 쓰임을 넓혀 간다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예술가들과 문인, 지역연구자들에게 활동의 장을 넓혀 기본소득과 같은 경제적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주지역 인문서점들에 대해 소개한 후, 평생학습관과 시립도서관, 교육청, 인문서점, 전주교대 등을 아우르는 인문학 세미나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이선 전북대 철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성기석 인문공과 파사주 대표, 박은정 인문학동기, 채신자(문탁네트워크), 류정아 전주교육지원청 장학사,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 양귀영(책방놀지) 6인의 패널이 참여,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했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인문학 분야의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인문학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다"며 "시민인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와 토론에 이어 2부 순서로 '서로 배우는 집단지성의 장'을 주제로 시민인문세미나를 열고, 참여한 시민들이 직접 쓴 인문예세이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재열 교육청소년과장은 "인문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정책방향을 찾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민인문세미나를 육성, 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100년 후 보물, 미래유산을 찾습니다'

### 전주시, 내달 17일까지 미래유산 지정 시민공모 한옥·근·현대 건축물 등 발굴·보존 할 계획

전주시가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생활 속 문화유산을 발굴, 보존하여 100년 후 미래에 전주를 대표하는 보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전주에 소재한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생활유산 등 시민들의 기억과 감성이 담겨 있으면서 미래세대에 전달할 가치가 있는 장소와 유물들을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 보존·활용하기 위한 시민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오는 8월 17일까지 약 5주간 진행하며 대상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의 기억과 감성을 지닌 근·현대 전주의 문화유산'이다.

세부적으로는 △특색 있는 장소 또는 경관 △근·현대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과 관련된 장소·사물 △전주를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하는 작품 △전주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기념물 등이 해당된다. 단,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공모는 전주시청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공모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주시 전통문화유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e메일(summit86@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발굴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된 2018 전주미래유산은 오는 12월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삼양다방을 비롯, 남부시장과 농소동 천사 등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들의 기억이 담겨 있는 유·무형 문화유산 38건을 지정, 대상지에는 미래유산임을 알리는 동판을 부착했으며 전주시 문화관광 홈페이지(tour.jonju.go.kr)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박화성 전주 전통문화유산과장은 "전주 미래유산은 전주의 근·현대 문화유산이자 시민이 기억하는 전주의 정체성으로 100년 후의 보물이 될 것이다"며 "우리 주변의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공모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전주시자원봉사센터

### 1365포털 전산교육 실시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센터전산교육실에서 신규관리자를 대상으로 1365포털 전산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전주지역 봉사활동 수요처에서 자원봉사자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자원봉사 실적 인증, 상해보험 안내, 마일리지제도, 봉사자 모집 및 배치 방법 등 자원봉사 활동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자원봉사 관리 담당자가 유동적으로 바뀌는 것을 고려, 매월 2회(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걸쳐 1365포털 관리자 교육을 하고 있다.

황의옥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전주시 자원봉사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2018 전주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기자간담회가 11일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신재홍 수석부위원장(가운데)과 관계자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전주시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김현덕 운영위원장, 백영규 행정위원장, 고미희 복지환경위원장, 박형배 문경위원장, 김진욱 도건위원장

전주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3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 김현덕 의원(삼천1동), 행정위원장에 백영규 의원(중앙, 완산, 중화산1동), 복지환경위원장에 고미희 의원(효자4동), 문화경제위원장에 박형배 의원(효자4동), 도시건설위원장에 김진욱 의원(송천1동)이 각각 선출됐다.

선출된 위원장들은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송효철 기자

## 완산구, 7월 정기분 재산세 276억원 부과

전주시 완산구는 구내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143,614건, 276억원을 부과했다.

11일 완산구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신축 건물기준가액 2만원, 공동주택가격 1.4%p, 개별주택가격 2.65%p 상승으로 작년 7월 대비 1.57%p 소폭 증가(4억원)하였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재산세고지서를 7월 12일 일제발송하고 납세자로부터 과세사실에 대한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응대를 위해 지난 11일 세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요령을 교육했다. /뉴시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되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과세된다.

납기일은 이달 말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또는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ARS(1588-2311)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뉴시스

## "상향등 왜 커!" 상대 운전자 위협한 30대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명희 부장판사는 뒤따라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켜다 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용정동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쏘나타 운전자 B(49·여)씨가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자 3~4차례에 걸쳐 급제동을 하고 차선 변경을 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